권력자 종교편향 비극만 잉태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㊺ 거지국에서의 일화

손오공 일행 천축 가는 길을 서둘지만 서둔다고 빨리 가는 것은 아닐세!

이름도 이상한 거지국(車遲國)이라는 나라, 거지들이 사는 거지국이 아니라 수레가 늦게 가는 나라, 거지국이니. 어찌 빨리 지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나라 많이 이상한 나라, 온 나라가 도교만 받들고 불교는 마구 짓밟아. 도사는 귀족이요 스님들은 천민, 아니 천민만도 못한 노예상태로구나.

큰 가뭄이 들어 온 나라가 허덕일 때 스님들 기우제엔 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웬 도사 셋이 출현하여 큰 비를 내리게 했다네. 호력대선(虎力大仙), 녹력대선(鹿力大仙), 양력대선(羊力大仙), 세 신선이라던가?

이 나라 왕이 워낙 줏대가 없어 이 한 사건으로 불교는 영험이 없다 탄압하고 도교만을 받들게 되었다는군. 비참한 노예 생활에 수많은 스님들 죽고 달아나고 이제는 500명 스님만이 남았다네. 이러한 때 나타난 손오공을 보고 모든 스님들이 환호를 한다.

"내가 좀 잘생기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환호를 받을 줄이야!"

손오공 감동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사연이 있다. 스님들 꿈에 불교를 옹호하는 신들이 나타나 당나라 성승을 모시고 가는 제천대성이라는 분이 이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을 해줄 것이라며 용모까지 알려주셨다나?

이때부터 손오공의 맹활약이 전개된다. 스님들 모두 풀어주어 달아나게 하고 저팔계 사오정 꼬드겨 세 도사가 제를 올리는 삼청전(三淸殿)에 잠입하여 모든 제사 음식 쓸어먹는다.(주로 저팔계가!)

삼청[도교의 최고신 ; 태청, 옥청, 상청] 신상 때려 부순다. 삼청으로 변신하여 거짓 위엄을 보인다. 성스러운 물[聖水] 내려달라는 기원에 자기들 오줌을 내려준다.

이상한 오줌 맛 때문에 정체가 발각되자 술법을 부려 탈출한다. 기타 등등….

다음날 뻔뻔하게 통행증에 도장 받으러 국왕 앞에 나선다. 불교는 싫어하지만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무시 못해! 통행증에 도장을 찍으려는 국왕.

호력, 녹력, 양력의 세 도사가 등장하여 손오공 일행이 저지른 일을 고해바치지만 손오공, 증거가 있느냐고 오리발…오리발…오리발…마침 여름 가뭄을 걱정하는 백성들이 기우제를 지내달라는 탄원을 올리니 비를 내리는 것으로 내기가 붙게 되네.

비를 내리게 하면 통행을 허락하겠지만 내리게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리 하야 먼저 도사들이 법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 도사들 비보통 도사들이다. 호력대선이 단에 올라 부적을 태우고 영패를 울리니 비가 올 듯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한다. 놀란 손오공 털을 뽑아 가짜 몸 만들어 놓고 급히 올라가 살펴보니 바람의 신 와 있네.

풍파파(風婆婆)와 손이랑(巽二郞)이던가? 손오공 여의봉 휘두르며 호통을 친다.

"이 제천대성을 모르느냐!

바람 한 점이라도 불어 도사 수염만 흔들려도 여의봉으로 각각 스무 대씩이다!"

놀란 신들 손오공에게 납작 엎드린다. 일던 바람 사르르 죽어 버린다. 그렇게 구름의 신, 벼락의 신, 마지막에 용왕까지 힘을 못쓰게 만들어 버리니 호력대선, 얼굴이 벌개지도록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

"아마도 용왕이 집에 없나봅니다"

구차한 변명…손오공이 약을 올린다.

"내가 보니 집에 있소. 당신 법술이 신통치 못할 뿐이지!"

그리곤 현장 법사를 단에 오르게 한다.

"스승님은 그저 염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곤 여의봉으로 신호를 하니 마침 와있던 여러 신들 차례로 바람 불게 하고, 구름 끼게 하고, 번개 치게 하고 마지막에 용왕이 비를 쏟아 붓는다.

결국 내기는 손오공 팀의 승리! 국왕이 현장법사의 법력에 감탄하여 통행증 도장 찍어주려 하는데 세 도사들 끈질기게 시비를 건다.

자기들 법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른 용왕이 사정이 생겨 늦었는데 마침 기회가 좋아 현장법사가 비를 내리게 만든 것이라나? 결국 손오공이 용왕을 현신시켜 국왕을 감복시키는데…. 정말 끈질긴 도사들, 여전히 포기를 못한다.

"어찌 이번 한 번의 일로 지금까지 저희들 공로를 한 번에 다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저들과 한번 법력을 겨루게 해주소서!"



그림 · 최주현

손오공, 도사와 도력대결 펼쳐
거지국왕의 도교편향에 일침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내용 담겨

줏대없는 국왕, 또 다시 마음이 흔들려 법력대결이 벌어진다. 도교 대 불교, 도사 대 스님!

우리 편 이겨라! 저쪽 편도 잘해라?

이야기가 종교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도교와 불교가 다투는군요. 본디 두 종교는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도교에도 출가자라 할 수 있는 도사(道士)가 있고, 절에 대응하는 도관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국에서는 이 두 종교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경쟁을 계기로 완전히 상하관계의 위치가 되었군요. 결국 수많은 스님들이 달아나고 죽고, 오백 명 남은 스님들만이 신장들의 가호를 받으며, 손오공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상황이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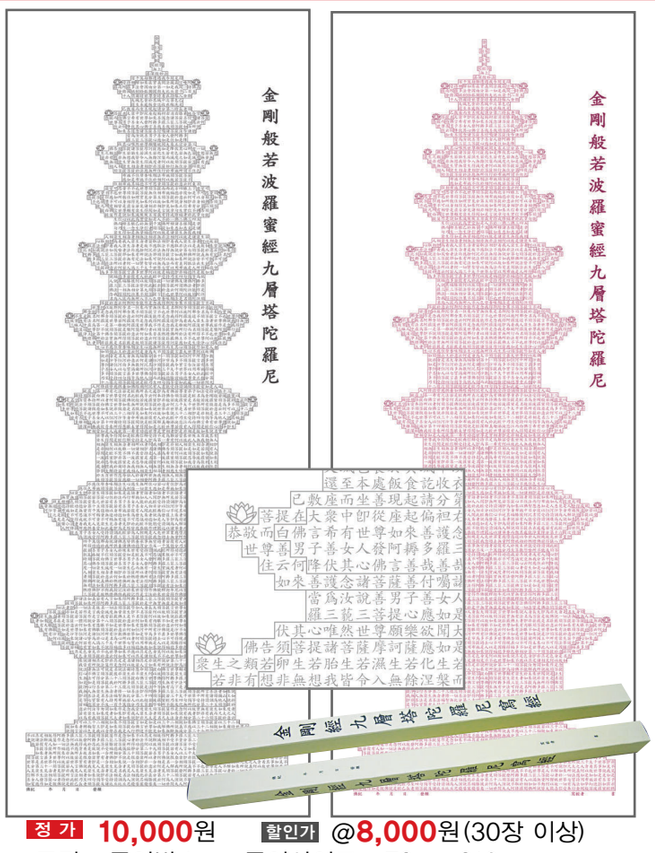
이렇게 종교들이 우열을 다투고, 그것이 사회적인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겠지요. 종교에도 좋은 종교 나쁜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사교(邪敎)도 있고 사이비 종교도 있고 미신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종교들이 서로를 헐뜯고 우열을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이 나게 됩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을 쏟아 붓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런 종교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가장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가 한 울타리처럼 좁아진 현대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종교 간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 종교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만이 참된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모두 삿된 종교이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만이 독야청청, 홀로 존재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종교의 참된 종교성을 의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는 자신의 종교가 가장 훌륭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의 내면적 믿음의 차원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각각 무한한 믿음의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개인들 각각이 자유를 가진 점에서는 평등합니다. 내 믿음의 자유가 남의 믿음의 자유보다 우월하거나 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믿음의 자유가 남의 믿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포교의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교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를 혼동해요. 그래서 포교의 자유가 무한하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남의 믿음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깊은 신앙심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종교 사이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결국 커다란 사회 갈등으로 증폭됩니다.

특히 권력자가 종교적 편향을 보이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종교에 의한 비극이 연출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유기의 대목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국왕이 줏대가 없고 판단력이 흐려서 도교만을 우대하고 불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고 권력자, 또는 고위 관료들의 종교편향으로 빚어진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교적 종교적 갈등이 적던 우리나라도 이젠 그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이 종교 갈등, 공직자나 권력자의 종교편향에 관한 이야기 좀 더 해보기로 하지요. 불교박해하는 거지국에서 손오공이 일으키는 풍파도 좀 자세히 살피구요. 다음 회에 뵈어요.

(특)대형금강경 9층 탑사경지 〈먹/적, 종이박스포함〉



정가 10,000원 할인가 @8,000원(30장 이상)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76㎝×210㎝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30,000원(100벌)
할인가 @270원(1000벌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 가 1,500원
할인가 1,300원 100개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051)515-8888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